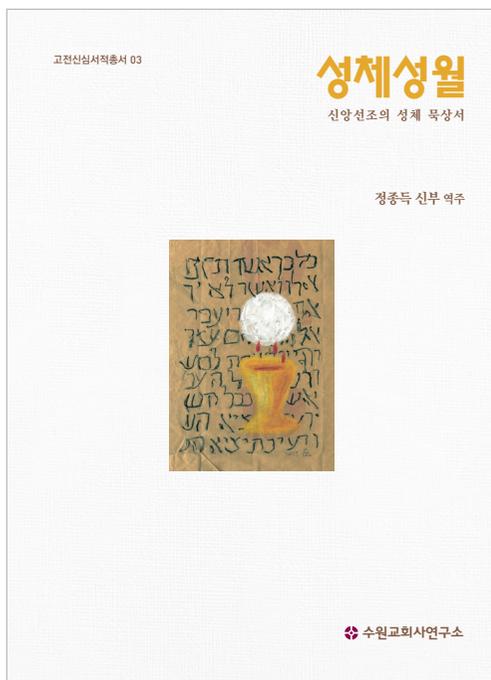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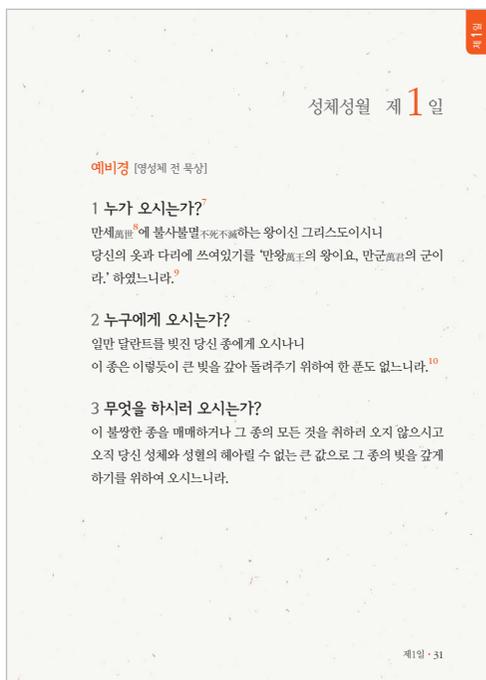
## 『성체성월』(신앙선조의 성체 묵상서) 소개

- 약 300년의 역사를 지닌 고전 신심서의 첫 한국어 간행본 -

수원교회사연구소는 ‘고전신심서적총서’ 제3권으로 역주본 『성체성월』을 펴냈습니다.(2023년 12월 25일 초판본 / 2024년 8월 15일 제2판) 연구소장 정종득 신부가 1890년 필사본 『성체성월』(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을 현대 우리말로 옮기고 신앙선조들의 문헌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주석을 붙였습니다. 역주본 뒤에는 영인본, 판독본, 현대어 표기본을 수록하고, 고어와 옛 용어를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성체성월』 표지  
표지 그림은 수원교구 이용삼 신부의 작품으로,  
히브리어 십계명을 배경으로 성체성혈을 표현하였습니다.



『성체성월』 제1일 예비경

『성체성월』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구성된 성체 묵상서입니다. 하루의 묵상은 영성체 전날 저녁에 하는 <예비묵상>과 영성체 후에 하는 <감사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비묵상>에서는 ①누가 오시는가? ②누구

에게 오시는가? ③무엇을 하러 오시는가? 라는 3가지 주제의 ‘예비경’을 통해 성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영성적인 글귀로 된 ‘양모경’을 바칩니다. <감사묵상>에서는 ①심중(心中)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하기 ②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결심하기 ③성덕(聖德)을 실행하기라는 3가지 주제로 ‘감사경’을 묵상하며, ‘양모경’을 바칩니다.

‘성체성월이 몇 월인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성월’이나 ‘위령성월’처럼 연중 어느 달을 선정해서 특정한 신심을 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영성체를 준비하고 감사해야 하므로 이 책 『성체성월』에서는 1년 동안 모든 달에 성월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라틴어본 『성체성월』의 서문에는 “어느 달이든 그 달의 날수에 해당하는 만큼 예비경과 양모경과 감사경을 드립니다(Tot praeparationes, aspirationes et gratiarum actiones damus, quot singulis cujusvis mensis diebus sufficient).”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필사본 『성체성월』은 번역서인지 한국교회의 저술인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주자 정종득 신부의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또 다른 한글본인 1931년 고군삼 신부(高君三, 1904-1982)의 번역(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1890년 필사본이 18세기 초[173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라틴어로 처음 간행된 책의 번역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틴어본 초판이 간행된 이후에 유럽 각지의 도시와 서아시아, 남미에서 라틴어본과 번역본이 간행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011년 바티칸에서 라틴어-이탈리아어 대조본이 출판되었고(제목 ‘Mensis Eucharisticus(멘시스 에우카리스티쿠스)’), 이후 영어본(2012)을 비롯한 여러 종의 번역본이 새롭게 출판되었습니다.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역주본 『성체성월』은 신앙선조들의 성체 신심을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약 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여전히 애독되고 있는 고전 신심서의 첫 한국어 간행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역주본 『성체성월』은 필사본의 고어를 현대 우리말로 옮기되, 현대의 독자들이 신앙선조들의 영성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성경직해』, 『천주교요리 대문답』, 『천주성교공과』과 같은 옛 문헌이 활용된 각주를 통해 독자들은 신앙선조들의 교리와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울림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신앙선조들이 성체를 모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성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렸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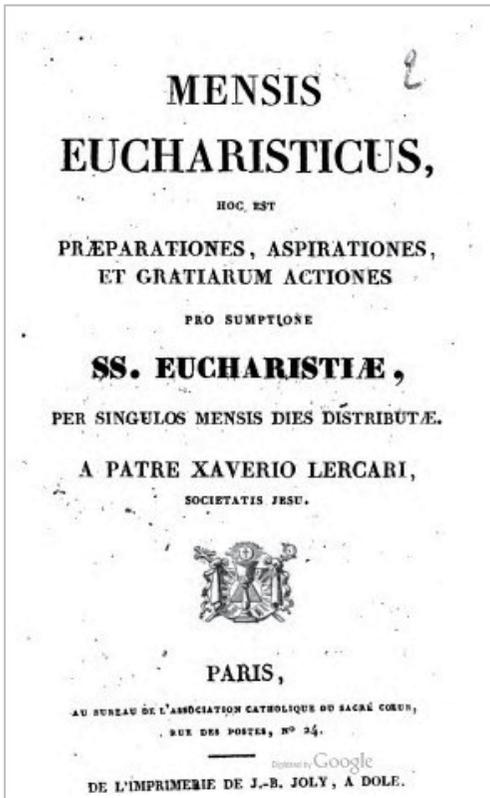
이 책은 영성체 준비, 성체강복, 성체묵상을 하기 위한 최고의 책이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이 얼마나 큰 성사이며 은총인지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 책은 31일로 이루어졌지만, 읽고 또 읽어 묵상하면 끊임없이 샘솟는 성체 은혜의 샘을 얻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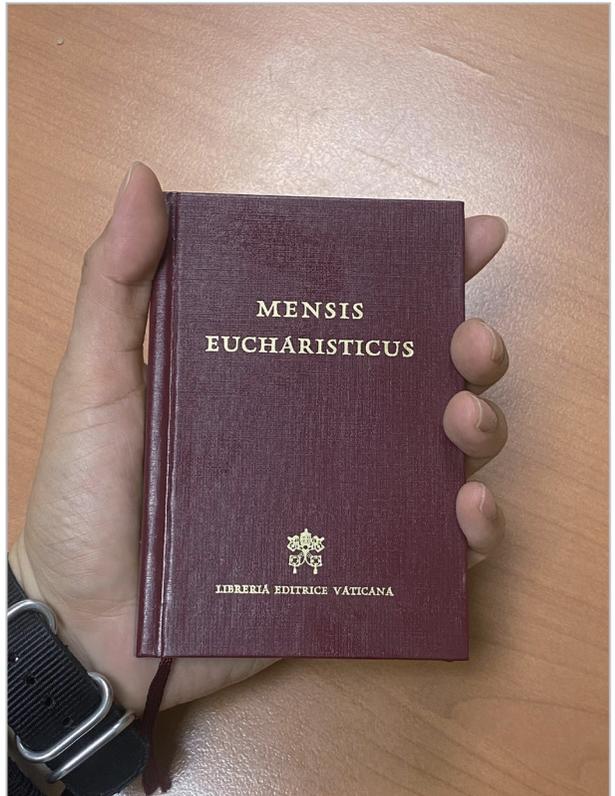
-역자 서문 중에서

아래의 대조표를 통해서 역주본을 포함한 네 가지 본의 제1일 예비경과 양모경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1828년 파리(Paris) 본과 2011년 바티칸 본의 표지입니다.

1828년 파리 라틴어본	1890년 필사본
<p><b>PRAEPARATIO</b></p> <p>I. Quis venit? Christus, Rex saeculorum immortalis, qui habet in vestimento et in femore suo scriptum: Rex Regum, et Dominus Dominantium. 1Tim. 1, 17 ; Ap. 19,16.</p> <p>II. Ad quem venit? Ad subditum suum, decem millium talentorum debitorem, qui nec obolum habet undè incipiat debitum tam ingens exsolvere. *Matt. 18,24.</p> <p>III. Ad quid venit? Non ut miserum servum dividat, et omnia ejus accipiat; sed ut ei pretium Corporis et Sanguinis sui immensum majus debito, ad solvendum tribuat.</p> <p><b>ASPIRATIO</b></p> <p>Exulta satis, filia Sion, jubila, filia Jerusalem: ecce Rex tuus veniet tibi justus, et salvator. Zach. 9,9.</p>	<p><b>예비</b></p> <p>一 뉘 오시느뇨 만세에 불스불멸하논 왕이신 그리스도   시니 당신 옷과 다리에 썼시디 만왕의 왕이오 만군의 군 이라 하였느니라</p> <p>二 뉘게 오시느뇨 십천 달넨다를 빚진 당신 종의게 오시느니 이 종은 이러투스 큰 비술 보환하기 위하야 혼 폰도 업느니라</p> <p>三 무어술 하시려 오시느뇨 이 불쌍한 종을 미미하며 더의 모든 거술 취하러 오 지 아니시고 오직 당신 성테와 성혈의 무량이 큰 갹 수로 더의 비술 갹게 하기를 위하야 오시느니라</p> <p><b>양모</b></p> <p>시온 녀즈여 용약하며 예루살넨 녀즈여 혼희하라 문득 구세자   시오 공의하신 네 왕이 네게 림하시 리로다</p>
1931년 고군삼 신부 번역본	2024년 정종득 신부 역주본
<p><b>령성체 예비</b></p> <p>一, 오시난 이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영세의 왕이신 자   니, 그 복장과 그 다리에 쓰였스되 왕들의 왕이시며 주관자들의 주   시로다. (딤토서 一,十三 ; 묵시록 十九,十六)</p> <p>二, 누구에게 오시나냐? 당신 종을 차저오시나니, 즉 만금 빚진 죄인이라. 이 큰 빚을 다 갹하야 할 것인데 일천 금액도 업난 자로다. (마두 十八,二四)</p> <p>三, 무엇하러 오시나냐? 결코 불쌍한 이 종을 옥졸에게 부쳐 판 후에 그 재물을 탈취하러 오심이 아니오, 오직 당신 몸과 피의 갹을 주 사 이 종이 갹할 빚보다 무한이 더 큰 상의 보화를 주어 그의 빚을 갹하주시려 하심이로다.</p> <p><b>감탄</b></p> <p>시온아, 용약하라. 혼희하라, 예루살넨 촌아. 문득 그대의 왕이시오 의덕이시며 구세주이신 자   그 대에게 림하시나니라. (자가리아 九,九)</p>	<p><b>예비경</b> [영성체 전 묵성]</p> <p>1 누가 오시는가? 만세萬世에 불사불멸不死不滅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이 시니 당신의 옷과 다리에 쓰여있기를 ‘만왕萬王의 왕이 요, 만군萬君의 군이라.’ 하였느니라.</p> <p>2 누구에게 오시는가? 일만 달란트를 빚진 당신 종에게 오시나니 이 종은 이렇듯이 큰 빚을 갹아 돌려주기 위하여 한 폰 도 없느니라.</p> <p>3 무엇을 하시러 오시는가? 이 불쌍한 종을 매매하거나 그 종의 모든 것을 취하러 오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 성체와 성혈의 헤아릴 수 없 는 큰 갹으로 그 종의 빚을 갹게 하기를 위하여 오시느 니라.</p> <p><b>예비 양모경</b></p> <p>시온 여자여, 용약[踊躍, 기뻐 뛰]하며, 예루살렘 여자여, 환호하라. 보라, 구세주이시오 공의公義하신 네 왕이 네게 임하시 리로다.</p>



1828년 파리 본 표지



2011년 바티칸 본 표지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가 인상적입니다.

정혜정 마리아 (연구원)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5호, 9월 30일 간행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 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총서와 대역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성체성월』(신앙선조의 성체 묵상서) 구입 안내

- 도서구입을 원하시면 QR코드 주문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연구소(T.031-792-8541)로 문의해 주십시오.

